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역점

대불청, 신년사업계획 발표

새로 출범한 제27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주호·이하 대불청)가 20·30대 청년불자를 위한 포교활동에 본격 나선다.

대불청은 1월 21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주호 회장은 “청년 불자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며 “대불청은 세대교체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 20·30대 청년 불자들을 보듬어 전국 대불청 네트워크를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불청은 소통·비전·화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교·신행 사업 △회원으로 사업 △사회적 기업 △공모사업 등 교육·신행 사업을 통해 청년 불자 희망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불청은 우선 공연과 토크콘서트(가칭)를 통해 청년 불자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SNS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유대하면서 ‘왓츠캠프(What's camp - 걸으며 치유하고, 대화하며 나누는 힐링캠프)’를 실시, 불교기능농장 등 지리산 일원에서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불청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각 6회에 걸친 청년 강좌를 연다.

전 회장은 “그동안 대불청은 청년 불자를 키우는 것에 대한 체계없이 외형에만 치우쳐 운영해온 것이 문제”라며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통해 청년 불자를 모집하고 각 지구·지회 조직을 활성화해 청년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은 기자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문 재가봉사단 출범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1월 21일 승가복지 전문 자원봉사단 출범식을 열고 스님들의 기초 복지 발전을 다짐했다.

승가복지 전문자원봉사단은 조계종 자원봉사단의 특화된 전문영역봉사단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2년간의 봉사경력을 소유한 봉사자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승가복지 전문자원봉사단은 △승가복지 종합상담 △제도 홍보 △승가공양(후원)기금 모연 및 후원활동 △자원개발 및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간화선 세계화, 그 해답을 보았다

아산 브람 스님 방한 1주일이 남긴 것들

세계적 명상 수행자인 아산 브라흐마 스님(사진, 이하 아산 브람)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아산 브람 스님은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동국대 국제선센터와 강당에서 열린 세계명상힐링캠프에서 참가자들의 수행을 살폈으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봉은사, 불광사 등 주요 도심사찰에서 대중 법회를 봉행했다. 사시사철 수좌들의 정진이 이어지는 문경 봉암사에서는 적명 스님과의 대담도 진행했다.

이미 아산 브람 스님은 <성남 물소 길들이기>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방한에 대한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동국대의 세계명상힐링캠프에는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조계사·봉은사·구룡사 등에서 열린 대중 법회에서도 평균 500여 명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아산 브람 스님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명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 원하는 것이 줄어드게 됩니다. 현재 호흡에 집중하면 결정해야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재밌는 영화 볼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호흡에 정

집중 수행에 200명 참석

각 사찰 법회도 인산인해

‘불교에 쉽게 접근’ 특징

‘수행법 보편화’ 한국불교 숙제

말 흥미를 가지면 즐거워지고 여기에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11일 동국대 세계명상힐링캠프 집중 인터뷰 중)

실제 집중 수행에 참석했던 불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대부분이 불교를 쉽게 알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다.

세계명상힐링캠프에 참가한 명상수행경력 4개월의 초심자인 김택수 씨는 “아산



봉은사 대중법회에서 설법하고 있는 아산 브람 스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교리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수행법 개발이 필요하다.

브람 스님의 집중 인터뷰는 불교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며 “내가 찾던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안희찬 씨 역시 “초기불교 경전에 근거한 불교수행의 길을 아산 브람 스님의 법문을 통해 확인하고 명상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금까지 오온(五蘊)이 나의 친구인 줄 알았지만, 적(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다. 이번 생애에 깨달음의 굳건

한 토대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푸른 눈의 초기불교 수행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행사를 주최한 참불선원 아산 브람 한국 명상센터 선원장 각산 스님은 “이번 스님의 방한으로 그간 주석서 위주의 위빠사나 수행을 전통 경전에 근거한 정확한 남방불교 수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대인들은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올바른 명상법을 한국



가산당 지관대중사 문도회가 1월 20일 서울 경국사에서 봉행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제. <사진 왼쪽>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추모모<사진 오른쪽>에서 19일 연구위원과 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대례제가 봉행됐다. 당대 최고 학승 지관 스님의 추모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교회 십자가, 빛공해 방지법 제외

환경부 “종교 상징 규제 못해”

환경부는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가로등을 비롯한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조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밝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십자가의 경우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 시설임을 나타내지 않아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이라고 해석해왔다. 입법예고 기간에 교회 십자가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것도 이유였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광고조명에 포함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입안했지만 이후 입법과정에서 행안부의 이 같은 해석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故지관 스님 유지 이어 나갈 것”

문도회, 20일 경국사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제

지난해 1월 입적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추모제가 열렸다.

가산당 지관 대중사 문도회는 1월 20일 서울 정릉 경국사 관음전에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 대례제를 봉행했다.

‘행복과 화합의 인연’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월탄, 인환, 해승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웅, 중앙종회의장 향적, 호계원장 일면, 문도회 대표 태원, 전 포교원장 해홍, 前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 자문위원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에 다시 없을 학승”이라며 “스님의 덕화가 만대에 전해질기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시간이 갈 수록 지관 스님의 발자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행 정진과 후학 양성이라는 향기로운 자취를 이어가며 중생을 제철할 것인가”라고 애도했다.

이날 추모제는 종사 영반, 현향, 추모 영

행장록, 비 제막 등 계획

가산문화원 초하루·보름

지관 스님 다례제 봉행

상 상영, 추모사, 헌화, 문도 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관 스님의 사상과 유지를 신앙하기 위한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문도회는 지관 스님의 행장을 기리는 추모비와 부도를 조만간 해인사에 조성할 계획이다. 비문은 고은 시인이 맡았다. 지관 스님이 심혈을 기울였던 <가산불교대사관>의 완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밝혔다.

신종일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간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 정 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기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봉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